사회 아픔 치유 위한 명상 아카데미 열린다



명상지도자협회, 4월 명상아카데미 개강

"사회 변화는 제도가 아닌 개인이 먼저 조금씩 변화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명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직장 스트레스, 이혼 위기와 가족 해체 등 현대사회가 처한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명상아카데미가 열린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회장 혜거)는 4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지혜와 평화의 길' 명상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명상아카데미 강좌는 수요일에는 목우선원에서, 토요일에는 상도선원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열린다. 4월 5일과 8일 개강식은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명상아카데미는 스마일명상, 자비명상, 위빠사나 등 10여개 명상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명상아카데미에서는 기초과정으로 70시간 동안 성철 생활참선프로그램, 명상상담 이론과 실습, 위빠사나 호흡관찰법, 자비명상, 하트스마일명상, 가피명상, MBSR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심화과정으로는 명상지도자협회 소속 회원센터에서 100시간 동안 학습이 가능하며 센터로는 금강선원, 목우선원, 상도선원, 행불선원, 통담 아카데미아,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보리수선원, 위빠사나붓다선원 등 20여 곳이 준비돼있다.

전체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인터넷 강의도 신청가능하다. 특히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구교육으로 인증돼 과정 수료 시 연수점수 30점을 받을 수 있다.

상임이사 인경 스님은 "명상을 통해 이성과 감성의 균형으로 자기조절기능이 강화되고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번 강좌에서는 그동안 현장서 검증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명상지도자협회는 이번 강좌 이수 수강생에 민간자격증인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발부한다. 기초과정 후 심화과정을 수료하면 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총 46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명상전문지도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명상아카데미 강좌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홈페이지(www.kamto.net)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명상지도자협회는 3월 23~26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국제불교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명상 대중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명상지도자협회 부스에는 테마존과 체험존, 나눔존, 상담존에 나뉘어 명상정보를 제공한다. (02)953-5307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평균연령 75세, 마음은 젊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3월 8일 센터에서 탑골문화예술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다짐하는 입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배움 앞에는 나이의 구분이 없어 보였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 50년, 동문회관 건립 추진

50년사 편찬 및 인명록 발간, 선서화전도 개최 예정

50주년을 맞은 대불련총동문회가 동문회관인 청년붓다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불련 총동문회는 동문회관(가칭 청년붓다회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으며 50년을 맞아 〈50년사〉 편찬 및 인명록 발간, 50주년 기념 동문대회, 10.27법난 조명 세미나, 50년을 위한 사명과 비전찾기 운동, 대학포교 후원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 개최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50주년 기념 동문대회는 8월 12~13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리며, 10.27법난 조명 세미나는 10월 14일 경 예정돼 있다. 선서화전은 8~10월 경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불련총동문회가 구성한 대학전법지원단은 캠퍼스포교 활성화 및 지회 복원 사업으로 청춘콘서트와 초청강연회를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홍보지 가칭 대불련신문도 2회 발간키로 했다.

군포교지원단은 16곳의 군법당 2000여명의 장병들에게 법회를 지원하며, 53명찰 순례단은 9월 2일 회향 후 33관음사찰 성지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원각사 급식봉사를 진행하며 사업위원회는 상조사업과 생화 화환사업, 보험사업, 농산물 판매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불련이 시행하는 시곡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중앙대 이상화, 한림대 육주현 학생에게 각 300만원씩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낡은 신행 버리고, 자신 점검하는 계기로"

조계종 출가열반주간 '신행혁신계율산림' 성료

부처님 출가 열반 주간을 맞아 신행혁신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계율산림이 펼쳐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주최하고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성만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가 주관하는 신행혁신계율산림이 3월 5일 입재한데 이어 6일부터 11일까지 조계사 극락전에서 진행됐다.

조계종은 부처님이 출가한 음력 2월 8일과 열반한 음력 2월 15일을 출가열반정진주간으로 삼아 신행활동을 독려해오고 있다.

이번 출가열반정진주간은 특별히 신행혁신을 주제로 보살행을 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5일 열린 신행혁신계율산림 입재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법사로 나서 6가지 구체적인 실천덕목을 제시했다.



지홍 스님은 "낡은 신행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생활하는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 보듬는 불자 상담사 양성과정 '눈길'

조계종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 상담 전문 교육기관인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2017학년도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상담대학은 1년 과정으로 불교교리와 상담, 역사 등 기본과목을 비롯해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면접 상담 등을 강의한다. 졸업 후 불교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불교상담대학원은 2년, 4학기 과정으로 불교상담에 필요한 초기불교 수행과 상담, 명상심리상담, 대승불교와 상담, 자아초월 심리학과 불교상담, 유식학과 상담, 선과 상담 등 전문과목을 교육한다.

졸업 후에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 불교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서울시나 어르신상담센터, CLC희망학교, 가정법원, 서울남부구치소, 동대부여중 등 외부기관 상담활동이 가능하다.

조계종 포교원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인 관계로 스님은 40%, 종무원은 20% 학비 할인 혜택도 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심리상담사가 필요하지만 불자 상담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많은 분들이 불교 정신으로 상담을 하도록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군종교구, 대만불교 성지순례

생활불교와 현대적 불사 현장 견학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4박 5일간 대만불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군종교구 성지순례단은 교구장 정우 스님과 부교구장 승원 스님, 육군 7군단 도관 김희균 법사, 해군 2함대 혜정 김명환 법사, 그리고 공군 15전투비행단 동광 박대용 법사 등 영관 군승법사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순례에서 군종교구 순례단은 고웅 원조사, 제원사, 묘숭산, 불광산사, 중정기념당, 고궁박물관을 방문했으며, 대만불교 현대화 및 대중화 현장을 체험했다. 특히 고웅 원조사 주지 경정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불자들이 고웅 공항에서 군종교구 순례단을 맞아 환영행사 등을 개최했다.



순례 이튿날에는 불광산사 주지 심보 스님과 국제불교회 중화총회 서리회장 자용 스님을 만나 양국 교류도 함께 논의했다. 교구장 정우 스님은 "군승 150여명을 대표해 순례단에 영관 군승 15명이 참석했다. 대만불교의 원력과 수행력을 느끼고, 불법홍포의 새로운 원력을 세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